
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 「일자리 청년 · 창업분과위원회」
제8차 회의 결과

all ways INCHEON
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 인천광역시
(일자리경제과)

「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」 제8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0.5.18.(월) 16:00~18:00 / 인천대 창업지원단 세미나실(5층)
- (참석위원) 위원 11명 중 7명 참석
 - * 배석(4) : 일자리경제과장, 일자리위원회담당,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기획담당, 여성정책과 여성지원담당
- (주요내용)
 - '20년 인천시 청년·창업정책 보고·논의(창업활성화 지원방안 포함)
 - 경력단절여성 관련 의제 검토의견 보고·논의
 -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년 및 창업분야 대응방안 논의 등

□ 주요 논의 내용

① '20년 인천시 청년 및 창업 정책

- (창업 활성화 지원방안) 향후 창업주체인 창업포럼, 창업보육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용역을 수립할 계획(청년정책기획담당)
 - 시에서는 '창업마을 드림촌'을 창업지원 컨트롤타워로 수행하고자 하나, 스타트업파크와 달리 현재 실체가 없는 상황(위원장)
 - 창업지원 전담조직(부서) 신설 및 예산확대 ⇒ 조직·예산의 통합·일원화 필요(박○○ 위원)
 - 장기투자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필요(박○○ 위원)
 - 신규 프로그램 개설보다는 창업지원기관의 허브 필요(임○○ 위원)

② 경력단절여성 관련 의제 검토의견 * (의제제안) 부위원장

- (문제점) 사업대상을 연령대(39세 미만)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, 직접적 재정지원은 현실적 한계 ⇒ 단절 예방대책 마련 필요
- (대안) 경력단절 없는 장기근무를 위한 인턴십 추가지원
 - 인턴채용 후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계속 고용(근무)한 기업(인턴)에게 인센티브(기업 100만원, 인턴 100만원) 지원
 - 직접지원보다는 환경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이 지속 필요

③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년·창업분야 대응방안

- (일자리창출 지원) 창업기업이 신규고용 창출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, 기존 사업이 있다면 확대 추진(박○○ 위원)
 - 현재 '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'(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)으로, 1인 180만원의 인건비 지원
- (폐업·대출부담 대비)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처럼 창업자를 위한 공제제도 마련 필요(간사)
 - ※ (유사사업: 노란우산공제) 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·고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퇴직금(목돈)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(중기중앙회)
- (인천e음 연계 배달앱) 비대면 접촉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e음카드와 연동된 배달어플 개발(김용수 부위원장)
 - 현재 서구에서 지역 음식배달 서비스인 '배달서구' 시행중, 점차 군·구별로 확대할 예정
- (역량개발) 코로나19 시기를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 훈련기간으로 생각해야 함(박○○ 위원)
 - 창업단계 중 초기 교육·발굴단계에서의 인천시 지원이 미흡
- (기업유치) 스타트업파크에 우수한 창업기업과 인력을 유치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 ⇒ 고용시 급여보조 지원(위원장, 임○○ 위원)
- (기타의견)
 - 스타트업파크, 바이오, 스마트산단과 연계 '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인천'으로 표현(위원장, 임○○ 위원)
 - 제조업 탈피가 아닌 '제조업 기반' 4차 산업이 필요(임○○ 위원)
 - 제조업의 자동화, 정보화, 기능화 등 제조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개발(교육) 필요(박민영 위원)
 - 크게 3개의 그룹(예비취업자, 스타트업했던 기취업자, 기존업체)으로 나뉘, 각각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논의(박○○ 위원)